

# 브라질 코파아메리카 예선 탈락 수모

## '핸드볼 오심' 페루에 실점 1987년 이후 처음 8강 진출 실패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이 2016 코파아메리카 예선에서 탈락했다. 브라질은 13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코파아메리카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페루에 0-1로 패했다. 1승1무1패(승점 4)가 된 브라질은 B조 3위로 밀려났다. 상위 2개팀에 주어지는 8강행 티켓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페루(2승1무·승점 7)와 에콰도르(1승2무·승점 5)가 토너먼트에 올랐다. 브라질이 토너먼트에서 떨어진 것은 최근 대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4개팀만 토너먼트로 올라간 1987년 대회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 브라질은 '핸드볼 오심'으로 페루에 실점했다. 이날 페루는 후반 30분 라울 루이디 아즈가 오른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골장 받아 넣었으나, 중계화면상 팔을 사용해 공을 받아냈다. 심판진은 5분 가까이 고심했으나 결국 페루의 득점을 인정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페루를 상대로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한 브라질의 공격진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카를로스 동가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은

출발부터 삐걱했다. 선수 차출 문제에서 잡음을 빚었다. 에이 스라 불리는 네이마르(FIFA브셀로나)가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해 빠진 가운데 마르셀로(레알 마드리드), 다비드 루이스, 티아고 실바(이상 파리 생제르맹), 로베르트 페르미노(리버풀), 페르난지뉴(맨체스터 시티)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제외됐다. 더글러스 코스타(바이에른 뮌헨)와 카카(올랜도 시티)는 부름을 받았지만 부상으로 낙마했다. 그럼에도 조별리그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보였다. 브라질은 에콰도르, 페루, 아이티 등과 B조에 속해 대진군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동가 감독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동가 감독의 도전은 철저히 실패했다. 브라질은 5일 열린 대회 첫 경기부터 에콰도르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를 두드렸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무득점 끝에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쳤다. 최악으로 끝나는 아이티를 맞아서는 7-1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세웠다. 승점 다음으로 중요한 골득실 부분에서도 이점을



브라질은 13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코파아메리카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페루에 0-1로 패했다. 1승1무1패(승점 4)가 된 브라질은 B조 3위로 밀려났다. 상위 2개팀에 주어지는 8강행 티켓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차지해 조별리그 통과와 8부 능선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페루와의 3차전에서는 비기까만 해도 조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은 페루를 상대로 한골도 뽑아내지 못했고, 불운까지 겹쳐 그대로 꼬꾸라졌다.

토너먼트에는 참가도 하지 못하고,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만 입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2014년부터 대표팀을 이끌던 동가 감독의 거취도 불안해졌다.



## 익산시 평화클럽 도지사기 한마음축구대회 우승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김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도지사기 한마음축구대회에서 익산시 평화클럽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시 한백클럽은 결승전에서 익산시 평화클럽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3대1로 패배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시군 축구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 기회 조성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 총 16개 팀의 도내 클럽동호인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은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상 최우수상은 평화클럽의 박재훈 선수가 차지했으며 우수선수상은 한백클럽 소속 김상근 선수가 차지했다. 또한 감독상은 평화클럽의 서관재 감독이 수상했으며 심판상에는 박성욱 심판이 공로상은 김병원 이사가 수상했다. 전북축구연합회 관계자는 "갈수록 시군 동호인들의 기량이 향상돼 수준 높은 대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즐겁고 유쾌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익산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 중국 우승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 6월8일~13일까지 대한민국소프트볼협회(회장 최철남) 주관으로 개최된 제5회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가 대안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예선플리그를 거쳐 본선은 PAGE SYSTEM(예선 순위로 1위와 2위가 경기하여 승리팀이 결승에 진출하고 패자팀은 3위와 4위의 승리팀과 경기를 진행하여 승리한 팀이 결승에 진출)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강 일본을 중국이 1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 우승은 중국이 준우승은 일본 3위는 대만, 대한민국은 4위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은 홈그라운드 이점과 강화된 전력으로 우승을 노렸으나 어렵게 패하며 2017년 일본 대회를 기대하게 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여자소프트볼이 활성화되고 소프트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경기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전북현대 내일 홈에서 수원 삼성 잡는다

## 레오나르도·로페즈·김신욱 중심 무패 행진 잇기 나서

1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단장 이철근이 내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북현대에는 이번 시즌 7승 6무 0패 승점 27점으로 리그 1위를 마크하고 있다. 지난 12일 탄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 FC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아쉬운 동점골을 내주며 비겨 2위 FC서울과 승점차이가 1점으로 좁혀진 상태이다. 다행히 전북현대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열린 6경기에서 5승 1패로 조강세를 보이고 있다. 득점 역시 홈 6경기에서 무려 13골을 쏟아내 경기당 2.2골이라는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북은 12일 경기에서 선발 출장하지 않은 레오나르도, 로페즈, 김신욱을 중심으로

로 스타팅 라인업을 구축해 수원의 수비진을 공략할 예정이다.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이 현재 성남이 보유하고 있는 리그 개막 후 최다 무패(15경기)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13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온 전북은 앞으로 3경기만 남지 않으면 K리그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만들게 된다. 앞으로 기록 달성을 위해 전북이 만날 팀은 수원 삼성 인천 유나이티드, 광주 FC다. 한편 전북구단은 15일 경기에서 '순국선열 헌정 유니폼' 2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6월 6일 K리그 구단 최초로 순국선열 헌정 유니폼을 선보였던 전북은 이번 경기역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헌정 유니폼을 착용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구단은 15일 경기에서 '순국선열 헌정 유니폼' 2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6월 6일 K리그 구단 최초로 순국선열 헌정 유니폼을 선보였던 전북은 이번 경기역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헌정 유니폼을 착용할 예정이다.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